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7호 【루계 제24955호】 주체104(2015)년 6월 26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에 떨쳐나 침략의 아성을 통채로 쓸어버리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미제가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가 2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도발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적대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단호히 징벌하고야말 복수의 의지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일군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김양건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내각부총리들,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할 야망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인류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국수호의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었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오늘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고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호전광들과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내들고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다그치는 한편 얼마전에는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인 《4D작전계획》, 《4대작전원칙》을 공개하고 미국남조선련합사단까지 조작하며 북침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비밀리에 끌어들인 사실은 미제살인귀들이 우리 민족말살을 노린 생화학전쟁도발에 미쳐돌아가고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침략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연설자는 모두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쪼아박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강성국가건설의 우렁찬 동음으로 짓부셔버리고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과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대처하여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고 단호한 정의의 불벼락으로 이 행성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리기섭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날로 더욱 굳세여지는것이 바로 미제승냥이들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창조의 동음이 울리고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치던 공장과 거리,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미제침략자들이 제2의 조선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내외의 엄숙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붕괴》를 로골적으로 떠벌이고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며 최신핵선제타격장비들과 생화학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 하는 미제침략자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감히 신성한 조국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로동계급은 가슴속에 쌓인 분노의 활화산을 터쳐 침략과 도발의 아성을 통채로 쓸어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로동계급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과 반미대결전에서 선군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락랑구역 금대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춘금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지금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침략자 미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멸적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새 생활창조로 들끓던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야와 마을들을 황폐화시키고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귀축같은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저들의 앞잡이들과 함께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을 불법강점한 때로부터 70년세월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무참히 짓밟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히 추구하면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알곡증산투쟁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알곡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쌀로써 받들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미제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항쟁에 용약 떨쳐나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성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은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지울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승냥이 미제가 오늘도 남조선을 강점하고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기 위해 《북인권문제》니, 《북핵위협》이니 하는 궤변을 줴치면서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반공화국모략과 북침핵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철면피한 날강도무리가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청년들이 이 땅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고 지구가 열백번 깨여진대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한 혁명선렬들과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으로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영웅전사들처럼 불굴의 신념과 청춘의 용감성을 높이 발휘하여 반미대결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청년영웅이 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답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제일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와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의 진군길에서 청년전위의 기개와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는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대회는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취주악의 힘있는 노래선률에 발을 맞추어나갔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미제가 또다시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 무진막강한 백두산대국의 불패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격멸소탕해버릴 멸적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이 추켜든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 《병진로선》, 《반미대결전》, 《최후승리》 등의 선전화들과 손구호들은 세기를 이어오며 계속되는 반미대결전의 마지막페지를 온갖 죄악의 총본산인 미국땅에서 백두산총대로 통쾌하게 써주고야말 천만군민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인양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등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승리하였다

미제가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어느덧 65번째 년륜이 새겨졌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가 펄펄 끓는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뇌리에 더더욱 새겨지는 철의 진리는 무엇인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의 영예는 강철의 담력과 드센 배짱을 지니신 걸출한 령도자에 의하여 굳건히 수호된다!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달려드는 침략자들에게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침략전쟁의 검은구름이 휘몰아쳐오던 1950년 여름의 준엄한 그 나날들을 되새겨볼 때면 천만군민을 조국수호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비범하고 뛰여난 군사적지략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백승을 떨쳐온 만고의 령장, 문무를 겸비한 장군형의 수령은 일찌기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 조국건설의 우렁찬 마치소리가 울려퍼지던 이 땅우에 평화로운 일요일의 하루가 밝아오고있었다.

바로 그 시각, 극악한 원쑤 미제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쟁준비를 다그쳐오던 미제는 침략의 피비린내나는 군화발을 내짚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해방된지 5년,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준엄한 시련의 그 시각 이 땅에 퇴성치던 백두령장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오늘도 력사의 메아리로 울려퍼지고있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소.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시시각각 엄중해지는 전선형편을 놓고 누구라없이 우려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던 일군들은 비범한 예지의 안광,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빛발치는 백두산천출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전쟁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가슴끓이였다.

항일대전의 나날 《아시아의 맹주》라고 자처하던 일제의 명줄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하시며 호된 징벌을 안기시던 항일빨찌산대장 김일성장군!

백두의 퇴성마냥 천출명장의 단호한 선언이 이 땅에 울려퍼졌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정녕 그것은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일떠선 조선인민은 결코 어제날의 노예가 아니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자들과도 용감히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라는 백두산천출위인의 억센 담력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초기에 벌써 맞받아나가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였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분석판단하신데 기초하시여 적들을 전반적으로 격멸소탕할수 있는 요진통을 단번에 찾아쥐시고 강의한 의지와 결단력, 뛰여난 령군술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뛰여나고도 령활한 군사적지략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반공격개시 3일만인 6월 28일 서울상공에 공화국기발을 자랑높이 휘날리였다.

련속공격작전방침을 제시하시고 완강한 의지와 전개력으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인민군부대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공화국남반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얼마나 많은 전투들이 미제를 경악케 하고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던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던가.

우리의 영웅적해병들은 전쟁이 일어난지 며칠만에 주문진앞바다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적들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세계해전사에 없는 승리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위력의 일대 과시였다.

미일군사전문가들이 《오산의 비극》으로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첫막》이 열렸다고 론평한 오산전투는 또 얼마나 통쾌하였던가.

누구나 보기만 하여도 떨것이라고 우쭐렁거리던 미제의 《상승사단》의 선견대가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산이 되였고 《불퇴의 선》이라고 장담하며 구축해놓았던 금강방어선이 단 이틀사이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고말았다.

《상승사단》이라고 떠들던 미제의 24보병사단이 대전해방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되였으며 사단장은 병사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다가 포로가 되는 광경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불타는 조선, 싸우는 조선을 바라보고있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기적적승리를 두고 희세의 천출명장의 전략은 하늘에 닿고 그 빛나는 지략은 신기하기 이를데 없다고 진정으로 격찬해마지 않았다.

총포성이 울부짖던 전화의 나날 몸소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백승의 지략을 펼쳐주시고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으며 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였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참으로 그것은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배짱과 기상, 지략과 령군술에 있어서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걸출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이룩된 력사의 기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미제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군술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우리 나라를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다.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필승의 신념과 험산준령도 단숨에 넘고 헤칠 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천만군민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인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나가고있다.

6.25의 검은구름이 휘몰아쳤던 이 땅우에 승리의 7.27의 축포성이 영원히 메아리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쳐 전진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번영하는 이 땅우에 맑고 푸른 하늘만을 펼쳐놓을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뛰여난 군사적지략이 낳은 기적

무적의 땅크를 주타격방향에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주타격방향의 전선에서 작전에 참가한 우리의 영용한 땅크부대는 아군의 타격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적의 방어를 성과적으로 돌파할수 있게 하였으며 높은 공격속도로 적들을 커다란 공포에 몰아넣었다.

주체39(1950)년 6월 26일 밤, 우리의 땅크부대는 의정부를 완전히 해방함으로써 서울해방작전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적들은 어떻게 하나 제놈들의 소굴인 서울을 사수하려고 수많은 병력을 내몰았으며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정황에 대처하여 주타격방향에서 행동하는 땅크부대에 보병의 돌격로를 개척하도록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은 무적의 땅크를 공격의 주력으로 내세워 적의 방어선을 단숨에 짓부시고 원쑤의 아성인 서울에로 돌진할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무적의 땅크를 앞세우고 전진하는 강철의 대오의 도도한 흐름앞에 원쑤들은 기절초풍하였다.

세계해전사의 신화

주체39(1950)년 6월말 어느날이였다.

이날 해군부대의 한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군주력부대들의 반공격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2어뢰정대를 출동시켜 미제침략군함선집단을 소멸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다.

순간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자그마한 어뢰정과 1만 7 000t급의 중순양함이 교전해본다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를 바라보시며 적들은 우리 공화국의 함대가 저들과 기술적으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중순양함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것이라고 방심하고 있을것이다, 우리는 바로 적들의 이 약점을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적들의 허장성세와 그에 따르는 약점을 꿰뚫어보시고 적함대를 답새길수 있는 전술적방안들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은 주문진앞바다에서 미제의 중순양함에 대한 대담한 공격전을 벌리였다.

우리의 해병들은 미제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섬이라고 자칭하던 미제침략군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통쾌히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리고 경순양함을 격파시키는 빛나는 전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백전백승의 화살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탁월한 군사전략전술과 세련된 령군술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쟁승리의 국면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이 위대한 승리는 이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걸출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이룩된 력사의 필연이였다.

전쟁이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군사가들의 예지와 작전술, 령군술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다.

사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적용한 모든 전략과 전술, 작전들은 서방세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수많은 책략가들과 악명높은 호전장군들이 달라붙어 작성한것들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시는 승리의 화살표앞에서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백전백승의 화살표!

그것은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주체적인 군사전법의 빛나는 정화였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는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 거연히 서시여 승리의 화살표를 쭉쭉 그으시던 강철의 령장의 거룩하신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전쟁초기에 벌써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천리혜안의 예지로 분석판단하시고 강의한 의지와 결단력, 뛰여난 령군술로 모든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조직지휘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며 남으로 노도와 같이 진격한 인민군부대들은 반공격으로 넘어간지 불과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상공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리였고 련속적인 타격전으로 최종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금강방어선을 단숨에 돌파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타격에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은 미제의 가련한 몰골은 얼마나 비참하였던가.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전해방전투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바빠맞은 적들은 모든 병력을 대전방어에 집중시켰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전선사령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대전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멸적의 화살표를 그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론산계선에 진출한 인민군련합부대를 대전으로 우회기동시키며 적의 퇴로와 증원부대의 진출을 차단하고 소부대를 시내에 진입시켜 적들을 혼란시키는 한편 각 부대들로 하여금 대전의 적들을 정면과 익측에서 타격하기 위한 작전전술적명안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하고도 뛰여난 군사적예지와 지략으로 빛나는 승리의 화살표따라 인민군련합부대들은 곧 대전포위를 위한 작전행동으로 넘어갔다.

인민군부대들의 기동이 얼마나 은밀하고 신속하였던지 미 24보병사단장 떤은 《인민군대가 아무리 날고뛰는 재간이 있어도 하루밤사이에 그곳까지 나타날수 없다.》고 떠벌이며 제놈들이 포위에 든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한 작전적구상에 따라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상승사단》이라고 뽐내던 미제침략군 24사단을 비롯한 적의 대집단을 완전히 격멸소탕하였다.

백두령장의 빛나는 예지와 뛰여난 령군술이 안아온 눈부신 전과가 어찌 대전해방전투뿐이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이 낳은 빛나는 결정체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승리의 화살표는 그대로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앞길에 빛나는 승리의 행군로로 펼쳐졌으며 20세기 인류사에 영웅조선의 새 력사를 아로새기였다.

본사기자

총공격시간 새벽 5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주체39(1950)년 6월 28일의 새벽 5시는 어떻게 시작되였고 어떻게 흘렀던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가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에로 넘어가 서울을 해방하기 위한 총공격진지를 차지하였던 주체39(1950)년 6월 27일 저녁이였다.

최고사령부 작전대를 마주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참으로 무거우시였다.

한밤중에 총공격을 들이대면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귀중한 문화유적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것을 생각하신것이다.

수천년의 전쟁사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에서는 인정이나 동정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승리가 내다보이는 공격진지에서 과연 인민들의 생명재산의 피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겠는가.

그러나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그것을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에 서울로 공격해들어가면 서울시민들이 상할수 있고 또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적들이 손상될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공격에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날이 밝은 다음에 서울로 공격해들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오직 인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시각을 다투는 중요한 전투를 작전하고 지휘하실 때에도 먼저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해가 끼칠세라, 문화유적들에 손상이 갈세라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 아니랴.

이렇게 되여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지고 승리가 약속된 서울해방전투가 웅근 하루밤이나 미루어지는 전쟁사상 전례없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이러한 철의 용단과 결심앞에서 인민들은 격정에 목메였고 원쑤들은 전률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 뻰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훈 센 각 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8차전원회의에서 당신이 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된것은 당신에 대한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발전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4(2015)년 6월 24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자그레브

흐르바쯔까공화국 대통령

꼴린다 그라바르 끼따로비츠각하

나는 흐르바쯔까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25일 평 양

마 뿌 또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

필 리 뻬 뉴 씨 각 하

나는 모잠비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6월 25일 평 양

백두산총대, 계급의 총대로 신천의 원한을 천백배로 갚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신천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백년숙적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복수자들의 멸적의 의지가 온 강산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으며 원쑤들과는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주는 원한의 땅 신천에서 25일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이 저지른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며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맹세하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인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는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마인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에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민족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 장병들의 원쑤격멸의 기상이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모임에는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원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신천박물관 명예관장 주상원은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이 감행한 치떨리는 만행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는 무고한 인민들을 사지를 찢고 작두로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는 등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지어는 죽음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어린이들을 창고에 가두어넣고 그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들붓고 불망치들을 던지며 너털웃음을 치던 살인마들의 낯짝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다고 절규하였다.

신천의 복수자들은 오늘도 미제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며 천백배복수의 가슴후련한 시각을 고대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 다시는 신천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대양건너 식인종들의 소굴을 송두리채 불살라버릴것을 인민군군인들에게 절절히 당부하였다.

군관 김정수, 사관 김대성은 최근 밤나무골 화약창고주변에서 또다시 발굴된 수십구의 유해와 많은 유물들은 새 세대 총쥔 병사들에게 신천땅의 교훈, 계급투쟁의 진리를 다시한번 뼈속깊이 새겨주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형체조차 알수 없게 변한 유해들속에는 녹이 쓴 호미날이 박혀있는 얼굴뼈와 정수리뼈들이 있는가 하면 부서진 두개골들과 부러진 팔리뼈들, 총탄이 그대로 박혀있는 뼈들이 있었다고 분노에 넘쳐 말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인들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살인마들을 복수할 계급의 칼날을 더욱 억세게 벼려갈 의지를 가다듬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김일성정치대학 학생 한정혁은 《석당교의 웨침》이라는 제목의 웅변에서 해방후 풍년의 기쁨을 실어나르던 석당교가 살륙을 도락으로 일삼은 미제야수들의 인간도살장으로 변하고 강에서는 물이 아니라 피가 흘렀다고 말하였다.

신천땅을 강점한 다음날 전 신천군당방공호에 300여명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900여명의 인민들을 가두어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인 미제의 집단학살만행을 단죄한 병사 김향심의 웅변 《야수》는 참가자들의 심장마다에 원쑤들에 대한 증오의 피가 끓게 하였다.

시이야기 《최후복수전이 눈앞에 있다》에 출연한 사관들인 최광일, 전룡혁, 정충심, 병사 박영미는 새 세대 복수자들인 우리 군인들앞에는 이제 더는 증오와 분노로만 말할수 없는 신천의 원한을 풀어줄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서슬푸른 총대로 결산을 해도 가장 처절하게, 복수를 해도 백배천배로 악의 총본산인 미국땅덩어리를 초토화해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군관 김은석, 사관들인 박금선, 김성진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신천땅의 피맺힌 원한을 가슴에 안고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족쳐버리고 날강도 미제의 력사에 수치스러운 멸망의 마지막페지를 써줄것이라고 말하였다.

복수결의시가 랑송되고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잊지말고 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등의 함성이 신천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모임은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이어 참가자들은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인민군군인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였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은 살인귀무리들이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만약 미제가 이 땅에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신천땅에서 생죽음을 당한 령혼들과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을 총폭발시켜 인간백정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반미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하여 조미대결사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25일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또다시 핵전쟁과 세균전의 대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에 진입하여 피에 사무친 원한을 풀고야말 의지를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를 비롯한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에는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군중대회들에서는 각계층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에서

평안남도, 평안북도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65년전 신성한 조국강토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으며 또다시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미제가 전쟁 3년간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살륙하고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고도 모자라 핵참화까지 들씌울 흉계까지 꾸민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안주, 개천시, 숙천, 평원군을 비롯하여 침략의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자그마한 산골군인 양덕군에만도 수많은 세균폭탄을 떨구었다고 폭로하였다. 전쟁기간 평안북도에서만도 수많은 인민들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공장, 기업소, 학교와 병원, 살림집 등 건물들과 10여만정보의 농경지와 산림이 파괴되는 등 온 도가 페허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또다시 전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인민은 쌓이고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연설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피와 넋으로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라는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며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혁명동지, 열혈의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투철한 대적관념과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의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중요부문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더 많은 알곡과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원쑤들에게 멸적의 총폭탄을 날리는 심정으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이 감히 이 땅에 덤벼드다면 리수복, 강호영영웅들처럼 한몸이 육탄이 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데 대하여 말하였다.

순천, 덕천, 정주, 구성시, 평원, 룡천, 염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진행된 군중대회들에서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전민항쟁에 적극 떨쳐나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할 멸적의 의지가 표명되였다.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에서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불과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땅에서만도 군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한 미제살인귀들의 죄악은 세계전쟁사에 찾아볼수 없는 인간대학살만행이며 반인륜적범죄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황해북도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11만 2 900여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련행, 랍치해갔으며 수많은 산업시설물과 살림집 등을 페허로 만드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까밝혔다.

압록강기슭 초산땅에 있는 800애국자묘를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곳에 있는 애국자들의 묘와 철다리들에 생생히 남아있는 기총탄자욱들은 미제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백두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대고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을 억세게 틀어잡고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당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을 쌀로써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청년들이 전화의 영웅들처럼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청년영웅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송림, 만포시, 신천, 강령, 황주, 평산, 량림군 등의 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이 땅에 또다시 제2의 조선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미제와 남조선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피를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강원도에서만도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어촌들이 완전히 재더미로 변하였다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함경북도에서 8만여명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야만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함경남도에서만도 무려 11만 5 3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살륙하고 18만 4 000여동의 건물과 살림집들을 불태웠다고 말하였다.

침략자, 살인마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매여달리는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최후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화의 날 인민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미제승냥이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것처럼 원쑤격멸의 투지를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속도창조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억세게 틀어잡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는것으로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으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함흥지구와 검덕, 단천지구의 공장, 광산들, 수동, 금야지구의 탄광들, 원산군민발전소, 원산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산지구건설장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별동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답게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천, 김책, 신포시, 철원, 고성, 명천, 함주군을 비롯한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도 군중대회를 가지고 조국의 산과 들에는 살인마들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수백만 영령들이 눈을 감지 못한채 묻혀있다고 하면서 부모형제들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결사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에서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인류전쟁사상 류례없는 가장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가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오늘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책동은 더이상 방관시할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천만군민이 어깨겯고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움으로써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참모습을 힘있게 과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삼지연,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서 대홍단식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도처에 마련하여놓은 축산기지, 양어기지,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혜산청년광산, 남포항, 라진항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고조의 동음을 높이 울려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군대를 자기의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며 자기 고장과 향토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보천, 갑산, 룡강군들에서 진행된 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이 끝난 다음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세기를 두고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풀수 없는 원한을 남긴 철천지원쑤 미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멸적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거리들을 누벼나갔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김 정 은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황해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황해남도당위원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작전을 새롭게 짜고들고 있다.

분계연선지구에 위치한 도의 지역적특성에 맞게, 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냥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이 가장 악랄하게 감행된 고장의 특성에 맞게 도당위원회에서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승리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도당위원회가 계급교양작전을 짜고들면서 특별히 중시한 문제는 위원회안의 모든 당일군들이 계급교양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한것이다.

주판부서나 해당 단위의 일군들만 계급교양을 하는것이 아니라 도당위원회의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이 다 계급교양사업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도계급교양판을 새롭게 꾸리는 문제를 실례들수 있다.

지난 기간 도당일군들은 계급교양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도계급교양판을 꾸리는 문제에는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결국 도계급교양판의 내부와 외부가 계급교양거점답게 꾸려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안고 도당일군들은 그 어느 단위들보다 먼저 도계급교양판에 눈길을 돌리였다. 도육아원, 애육원건설과 소년회관건설을 비롯하여 도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건설이 한돌이 아니였지만 도당일군들은 도계급교양판개건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여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도계급교양판에 전시할 자료와 증거물들을 수집하는 사업과 강사들의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 일군들이 떨쳐나섰다. 그 나날 도당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왜 그토록 계급교양사업을 중시하시였는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으며 정세가 긴장하고 조건이 어려울수록 계급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일군들이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을 지니고 계급교양의 전렬에 서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도당일군들이 해당 군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내려갈 때면 의례히 군계급교양판과 리계급교양실을 찾아가 그 단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또 계급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료해하고 대책도 세워주도록 하였다.

그것은 도당위원회의 좋은 기풍으로 되였으며 도당일군들에게는 훌륭한 대학과정으로 되였다.

도당위원회가 계급교양작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시한 문제는 또한 각급 당조직들이 계급교양사업을 한시도 늦춤이 없이, 한순간도 소홀히 함이 없이 줄기차게,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계급교양사업들은 한마디로 틀에 박혀있었다.

참관사업과 복수결의모임을 비롯한 계급교양사업이 기념일들이나 그 어떤 계기때에만 일정한 틀에 맞춰 진행되여왔다. 말하자면 계급교양이 정상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행사식으로 진행되군 한것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계급교양을 항시적으로 실속있게 벌려 인민들의 가슴속에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도록 하였다.

여기에 도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동원되였다.

도안의 당조직들은 방송선전차와 포전방송기재들을 리용하여 시, 군소재지들과 농장벌마다에서 신천땅과 도의 곳곳에서 감행된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자료를 통한 계급교양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댔다.

그리하여 온 도를 계급교양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도계급교양판 강사들이 준비한 예술선동을 비롯하여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진행한 다양한 주제의 계급교양사업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원쑤격멸의 의지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였다.

도당위원회가 계급교양작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시한 문제는 다음으로 계급교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연안군당위원회와 신천군당위원회, 안악군당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당조직들은 들끓는 포전에서, 마을에서, 교정에서 원쑤들의 만행자료를 통한 원리교양, 실물교양을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주었다.

황남공업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도 구내와 복도들에 직관물들을 게시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대학생들이 계급투쟁의 진리를 물처럼, 공기처럼 들이키며 혁명의 대, 복수자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된 이 모든 계급교양사업들은 응당한 실효를 안아왔다.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연백벌과 재령나무리벌을 비롯한 도안의 농장벌들과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장, 소년회관건설장 등 전투장들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의 소식들이 끝없이 전해지고있다.

그렇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이것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 계급투쟁의 교과서이며 최후승리의 보검이다.

황해남도당위원회의 경험은 각지 당조직들이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인민들에 대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갈 때 우리 당의 계급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전초선을 지켜선 화선용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한 각지 계급교양판일군들과 강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자각을 총알처럼 재워주는 명중포화를 세차게 들이대고있다.

투사들을 키워내는 학교

옹진군에서 계급교양판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계급교양거점을 견결한 반제계급투사들을 키워내는 학교로 더 훌륭히 꾸릴것을 결심한 관장 심승호동무를 비롯한 계급교양판일군들과 강사들은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렸다.

그들은 계급교양판의 내부를 참관에 편리하게 개조하는 한편 록화강의실을 새로 꾸리고 강의에 필요한 비품들을 일식으로 마련하였다.

한편 직관판들을 품을 들여 만들어 게시하고 적들의 만행자료들도 교양적의의가 있게 전시하였다.

새롭게 꾸려진 계급교양판참관을 통하여 사람들은 미제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라는 관념, 적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나 관용도 있을수 없다는 계급투쟁의 철리를 뼈속깊이 새겨가고있다.

복수심을 끓게 하는 실화무대

구성시계급교양판에서 실화무대를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비상히 높여주고있다.

얼마전 시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떨구웠던 수십발의 폭탄들이 발견되였다. 60여년동안 땅속에 묻혀 우리 인민의 생명을 겨누고있던 폭탄들은 미제의 죄악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다. 관장 리철호동무를 비롯한 계급교양판일군들은 구성땅을 피바다, 재더미로 만들려고 1만 8천여발의 각종 폭탄을 투하한 미제의 범죄를 단죄하는 작품을 만들어 실화무대에 올렸다. 무대에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의하여 10여명의 일가친척을 잃은 김영애로인과 박원진영웅의 최후를 목격한 홍병칠전쟁로병도 나섰다.

《잊지 말자 승냥이 미제를》이라는 제목의 실화무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복수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명중탄을 날리는 사수

수안군계급교양판 강사 전애경동무는 10여년간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그의 강의는 철천지원쑤들의 죄악에 대한 력사적사실자료가 풍부하게 안받침된것으로 하여 청강자들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그의 높은 실력과 예술적기량은 강사년한이 준것이 아니다. 매일같이 출퇴근길을 걸으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습하였으며 기타연주를 비롯한 예술적기량과 화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계급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자료와 기재 등을 성의껏 도와주는 군당위원회와 군인민보안서 등 여러 단위 일군들의 방조는 그의 불같은 열정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직들과의 첨예한 사상적대결전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지닌 그는 오늘도 계급교양사업에서 명중탄을 날리는 사수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지워지지 않는 자욱

수필

수산리!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누구나 아는 지명이다.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곳이라 하여 그렇게 불리워온 고장이 오늘은 미제야수들의 피비린 살륙만행을 력사에 고발하는 증견자로, 복수를 부르는 제2의 신천으로 이 나라 인민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져있다.

얼마전 수산리계급교양판을 돌아보면서 나는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우리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강서군 수산면(당시)에 기여든 미제는 40여일동안에 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 1 050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목격자인 김정남동무는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수산땅에서만도 110여가지의 잔인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하면서 나를 어느 한 곳으로 이끌었다.

《놈들은 신정리인민위원장이였던 김계춘을 바로 저 떡돌로 무참히 깔아죽이였습니다.》

김정남동무는 분노에 치를 떨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10명의 장정이 겨우 들어올릴 육중한 떡돌로 김계춘을 내리친 놈들은 그것도 모자라 떡돌우에 올라타고 힘껏 내리누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김계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알이 튀여나오고 내장이 터져 흘러나왔다는 그날의 참상은 상상하기조차 몸서리쳤다.

나는 원한서린 떡돌을 눈여겨보았다.

해방후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마음껏 농사지어 거두어들인 햇쌀로 떡을 치며 온 동네가 명절처럼 흥성이였을 광경이 눈앞에 선히 어려왔다.

벌깃벌깃한 얼굴들에 땀발이 흐르도록 힘껏 떡메를 휘둘렀을 남정네들이며 잽싸게 떡반죽을 뒤집으며 함뿍 웃음꽃을 피웠을 녀인들, 주위에 오구구 모여들어 좋아라 웃고 떠들었을 아이들…

그러나 나의 눈앞에 놓여있는 떡돌은 결코 해방된 조국땅에 차넘치던 행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전시되여있는것이 아니였다. 미제살인귀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력사의 이끼속에 절대로 묻어둘수 없어 계급교양의 전초선에 못박힌듯 굳어진 증오와 분노의 응결체였다.

바라볼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세월의 눈비는 떡돌에 진하게 새겨졌던 피자욱을 가뭇없이 씻어버렸다. 원쑤들이 백운리 당세포위원장가족들의 시체우에 올려놓았던 징검돌에서도 그날의 피자욱은 찾아볼수 없다. 인민들의 선지피로 붉게 물들었던 개울에는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고 아츠러운 비명소리로 가득찼던 골안에는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울리고있다. 마치도 세월의 흐름속에 모든것이 깨끗이 지워진듯…

허나 어찌 지워질수 있으랴. 흐르는 세월이 자연의 모든것을 변화시킨다 해도 그 떡돌이며 징검돌에 서린 애국자들의 원한을 어떻게 지울수 있으며 목격자들의 피타는 절규를 무엇으로 막을수 있단 말인가.

지워질수 없다. 아직 꽃망울도 터치기 전에 미제승냥이들에게 두팔을 빼앗긴 리옥희녀성이며 신천의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주상원동무와 같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너무도 똑똑히 새겨진 살인귀들의 가증스러운 몰골은 절대로 지워질수 없으며 천백배의 복수를 부락하는 그들의 분노의 웨침은 이 시각도 새 세대들의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주고있다.

피자욱은 지워져도 력사에 새겨진 원한의 자욱은 결코 지워질수도 퇴색될수도 없다.

어제날의 피자욱을 잊으면 저 떡돌에 다시금 애국자들의 피가 슴배이고 조국산천이 인민의 붉은 피로 물들게 됨을, 60여년전의 그 피자욱을 망막이 아니라 심장속에 영원히 깊이 새겨야 함을 사무치게 깨우쳐주는 수산땅이였다.

본사기자 김 순 영

참관사업과 전투실적

해안구역 풍동리당위원회 사업에서

긴장한 두벌농사일정표를 놓고 해안구역 풍동리당비서 김만규동무는 농장일군들과 마주앉았다. 계획했던것만큼 영농전투실적이 오르지 못했기때문이였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기념일전에 뒤그루모내기를 끝낼것을 계획했었다. 그런데 이 속도로 나가면 하루가 모자랐다.

일부 일군들은 로력타산을 해보며 이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였지만 리당일군은 문제를 그렇게만 볼수 없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워준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지 못하고 마음의 탕개를 늦춘데 있다고 보았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리당비서는 계급교양의 도수를 한층 높일것을 결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피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농장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더 잘하여 그들이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쳐부실 복수의 일념을 안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당비서가 다음날부터 작업반별로 실정에 맞게 수도리생매장터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자고 하였을 때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가뜩이나 두벌농사일정이 긴장한데 급한 고비나 넘긴 다음에 참관을 조직했으면 하는 기색이였다. 그러한 심정을 알아차린듯 리당일군은 말하였다.

《물론 가고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두시간은 실히 걸릴것입니다. 하지만 난 그 두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높아진 계급적자각, 이것은 기적을 안아올것입니다.》

리당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다. 그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을 참관후의 전투실적은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이른새벽 작업반별로 대렬을 지어 수도리생매장터에 이른 농장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1호, 2호생매장터앞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들의 적개심은 수도리계급교양실을 참관하면서 폭발하였다.

애국자들과 어린이들을 구뎅이에 처넣고 마구 내리찍은 삽과 쇠스랑 등 살인흉기들, 애국자들에 대한 고문학살만행을 생동하게 재현한 그림과 사진을 비롯한 직관자료들…

농장원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생매장터에 대한 참관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게 천백배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본때있게 벌려나갈 맹세를 심장마다에 만장약시켜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장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승냥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쳐없앨 총알을 생산하는 심정으로 전투에 진입한 농장원들은 논갈이와 써레치기, 논두렁짓기, 뒤그루모내기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드티여질번 한 두벌농사일정을 맞출수 있게 되였다.

결국 두시간을 바쳐 하루를 얻은셈이 되였다.

본사기자 김 향 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판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5일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이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을 만났다

적도기네를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은 23일 대통령궁전에서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수용외무상이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 적도기네인민과 자기자신에게 보내주신 천금같은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되새겨볼수록 그분들을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각하께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간섭책동, 온갖 도전을 이겨내시며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계신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은 적도기네가 가장 어려울 때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형제의 나라이라고 하면서 지난 40여년간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온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확대강화하려는것은 적도기네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남협조의 정신에 따라 쌍무경제협조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표단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상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말라보 출발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는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적도기네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24일 말라보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성 대표상과 사절담당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리수용외무상은 체류기간 적도기네 농업 및 산림상, 교육 및 과학상, 광업, 공업 및 에네르기성 대표상을 만났다.

몽골 외무성 외교단복무국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오뜨건바야르 쟈야만다흐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외무성 외교단복무국친선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적인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소박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주석께서는 애국의 큰뜻을 품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을 해방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뜻을 이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이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국제친선전람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평양교예극장에서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였다.

총련의 방문단들 도착

김영자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과 교또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조명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뜻을 받들고 황금해의 새 력사 창조투쟁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자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원양어로전투출항식 진행

【신포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본받아 사회의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이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5월 8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인민생활향상과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수산부문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 황금해력사의 대문을 열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수산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원양어로전투출항식이 25일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수산성과 산하단위,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영철수산상의 보고에 이어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지배인 리재경, 양화수산사업소 지배인 송영호, 홍원수산사업소 기사장 리성호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원양어업을 개척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수산업발전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신데 대하여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 원양어업을 전개하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라의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수산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원양어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원양어로전투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자기 초소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로 여기며 화선용사의 자세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감으로써 맡겨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물고기잡이에 최첨단과학기술과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중심어장을 신속히 타고앉아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림으로써 고기배들마다에서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양어로전투에서 모선들의 물고기급동 및 저장능력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잡은 물고기를 한마리도 허실없이 제때에 가공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현장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 어로공들모두가 원양어로전투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냄으로써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물고기대풍으로 보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항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출항식이 끝난 다음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이어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선창들마다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풍어기날리며 조국으로 돌아올 열의안고 먼바다로 떠나는 어로공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송하였다.

남조선의 참혹한 로동실태를 폭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최근 괴뢰패당은 그 무슨 《노예로동》이니 뭐니 하는 험담을 줴쳐대며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을 목표로 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을 현대판 중세기적고역장으로 전락시킨 괴뢰들이 생뚱같이 《북해외파견근로자인권문제》를 걸고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매달리는 철면피한 추태는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괴뢰패당의 반인민적통치로 하여 참혹한 지경에 이른 남조선근로자들의 로동실태를 만천하에 까밝히는 백서를 발표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실업자대군

로동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며 실업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실업자대렬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0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자도 800만명에서 1 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청년실업문제이다.

올해초 청년실업률은 21.8%로서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무리로 파산되여 실업대란이 초래되였던 때보다 더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성원국과 지역들의 평균실업률보다 더 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4만 3 000여개, 30대 청년들의 일자리는 2만 1 000여개나 줄어들어 청년 4명중 1명은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을 얻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있는 청년들만 하여도 275만여명으로서 최고수준에 이르고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청년실업률은 31.8%로서 청년 3명중 1명은 무직자이거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있다.

결과 남조선에서는 대학졸업후 일자리가 없어 대출받은 학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청년실신》,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20살도 되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 등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별의별 해괴한 류행어들이 다 나돌고있다.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청년들이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로 불리워지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실업사태는 현 남조선당국이 고용률 70%달성을 구실로 림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수를 늘이고 해고는 쉽게 할수 있도록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추진한 결과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이것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정책연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청년실업의 책임이 현 당국에 있다는 대답이 73.6%에 달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자는 해외에 나가야 직업을 얻을수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남조선청년들을 해외로 마구 내몰고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 비참한 죽음뿐이다.

2013년 10월 오스트랄리아에 가서 쓰레기를 주어담는 일에 종사하던 23살 난 한 남조선처녀는 공원에서 머리타박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나타났고 12월에는 그 나라에서 여기저기 떠돌며 품팔이를 하던 28살 난 남조선청년이 한 개인집의 뒤마당에 시체가 되여 묻혀있다가 발견되였다.

지난해 6월 외국의 한 식당에서 견습생으로 고역살이를 하였던 23살 난 청년은 《접시만 닦으며 살았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휴식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이상 강제로동에 시달렸다.》, 《집에 갈 날만 세다가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

한 로조관계자는 《당국이 현지의 로동조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작정 청년들을 사지판에 내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에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로동자의 비중은 37.1%로서 주요자본주의나라와 지역가운데서 가장 높다.

남조선에서 비정규직로동자가 정규직로동자로 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더욱 기막힌것은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들도 비정규직으로 되여야 하는 《현대판신분제도》가 횡행하고있는것이다.

성공회대학교의 한 교수는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연구》라는 론문에서 부모가 비정규직인 자녀의 비정규직비률이 78%라고 주장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지금 남조선사회는 부모의 신분이 천민이면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민이 될수밖에 없었던 과거 봉건사회를 닮아가고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평하였다.

남조선에서 《온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정규직로동자들도 언제 실업자로 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정규직로동자들은 회사측이 자의대로, 비공개로 정하는 《살생부》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와 걱정속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해가며 참담한 현실속에서 살아가고있다.

실로 남조선은 일하고싶어도 또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도 일을 할수 없는 세계최악의 실업지역으로 되고있다.

극도의 렬악한 로동조건과 환경

일정한 직업과 함께 로동조건과 환경보장은 로동권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도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유리한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혀져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이 극도로 렬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하며 비인간적인 로동을 하고있다.

경제적리윤만을 추구하는 재벌기업들은 로동자들을 초보적인 로동보호, 안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죽음의 고역장들에 마구 내몰고있다.

2013년 5월 《로동자들의 무덤》,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악명떨치고있는 어느 한 제철소에서는 5명의 로동자가 전기로에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가스질식사고로 숨지고 그해 11월에도 독성가스가 루출되여 작업중에 있던 9명이 피해를 입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3년 한해동안 그 제철소에서 산업재해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1 123건이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10명에 달하였다.

뿐만아니라 주요선박회사들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산업재해로 3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올해에도 1월 21일 부산의 한 조선소구내의 기중기에서 기계실이 철거도중 바닥에 떨어져 그밑에 있던 4명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3월 25일 경기도 룡인시의 한 도로공사장에서는 건설중이던 다리상판이 무너져내려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남조선관계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전지역에서 지난해에만 하여도 산업재해피해자수는 하루평균 240여명에 달하는 9만 900여명이였으며 그중 사고로 인한 피해자수는 8만 3 200여명,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피해자는 7 600여명이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해 무려 2~4배로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유독성물질에 의해 각종 직업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있다.

지난 시기 삼성전자의 회사들에서 일하였던 로동자들가운데 160여명이 각종 암, 백혈병, 뇌종양, 신경통 등에 걸려 고통받고있으며 그중 지난해까지 100여명이 사망하였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한 로동자는 병을 앓다가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기계수리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로 처리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로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있다고 울분을 터치였다.

장시간 정신육체적으로 가혹한 로동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로동자들의 고통은 말할수 없이 크다.

어느 손전화기용축전지조립공장에서 일하는 한 로동자는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였다.

《쉬는 시간은 오전 10분, 오후 10분이 전부다. 고개를 들 짬도 없이 축전지를 끼우다가 손톱 두개가 새까맣게 죽어 빠졌다. 팔에 마비가 와도 자리를 비울수 없다. 허리를 펼새없이 저녁퇴근시간이후에는 김밥 한덩어리로 끼니를 때고 야간작업에 들어가야만 한다.》

어느 피복판매업체에서 일하였던 로동자도 《고용주에게 속아 매일 14~15시간씩 고된 일을 하였는데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쓰러진적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음향기재회사에 다니는 로동자는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것은 아파도 휴가를 갈수 없는것이였다. 인력이 부족해 한명이 빠지면 남은 직원들은 밥도 못 먹고 야근을 해야 했다.》고 한탄하였다.

지난해 8월 미국 CNN방송까지도 남조선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로동자들의 한주일로동시간은 세계근로자의 평균로동시간보다 12시간 길다, 남조선로동자들은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남조선로동자들은 살인적인 로동에 시달리고있지만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최저임금마저 아예 받지 못한 로동자수는 227만명으로서 2012년에 비해 57만명 늘어났으며 밀린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로동자수도 29만여명으로서 2009년이후 최고수치를 기록하였다.

남조선의 저임금근로자비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와 지역들가운데서 가장 높다.

그러니 어찌 남조선근로자들의 처지를 놓고 노예나 다를바 없다고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반인권적인 고용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남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짓밟는 고용범죄가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심각한것은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들과 장애자, 녀성들이 《헐한 임금으로 부려먹기 쉬운 로동력》으로 취급되고있는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소년로동은 금지되여있지만 오늘 남조선에서는 10대의 청소년들이 혹독한 강제로동에 시달리고있다.

올해 1월 남조선의 한 잡지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10대의 청소년들은 법적책임을 물을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기 힘든 간접고용, 래일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알수 없는 1일고용, 로동법의 적용조차 기대할수 없는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에서 노예적인 착취를 당하고있다. 사회의 밑바닥을 맴돌며 일하는 그들에게 로동은 지옥의 문을 여는것과 같다. 최저임금마저 벌금이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떼우고있다. 휴식일수당금, 산업재해보상금 같은것을 받는다는것은 꿈속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 한 배달업체에 고용된 10대 소년도 《하루평균 40~50건의 주문을 배달하려면 13시간의 장시간로동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사용료와 밥값 등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서너시간 일한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서울시내 각종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청소년가운데 계약서도 없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10대의 청소년들은 74.2%나 된다고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장애자들에 대한 로동력착취는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지난해 온 남조선땅을 들었다놓은 염전노예사건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어느 외딴섬에서 소금밭을 경영하는자는 현대판 노예상인들이 팔아넘긴 10여명의 장애자들을 포로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감금해놓고 마소보다도 더 가혹하게 혹사시키면서 부려먹었다.

지어 그들이 일을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하면서 몸을 쇠사슬로 묶어 개우리에 처넣는 만행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하루 4~5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일할것을 강요하였고 로임은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너무 힘들어 조금만 앉을 기미를 보여도 각목과 삽, 쇠몽둥이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한 피해자는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동료와 함께 섬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개먹이를 끓여 밥으로 주었고 배가 고파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3일동안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팼다.》고 폭로하였다.

48살 난 피해자도 《거간군들을 따라 그곳에 가보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중로동에 시달려야 했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거의나 굶다싶이 하였으며 게으름을 피운다는 리유로 몽둥이에 맞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포악무도하고 잔인한 만행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땅을 치면서 관계당국에 범죄자들의 죄행을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소금밭주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극구 비호두둔해나섰다.

남조선에서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세계최악의 수준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25살-54살 녀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률과 고용률은 각각 62.8%, 61.2%로서 이 기구에 소속된 나라와 지역들가운데서 가장 낮았다.

남녀임금격차도 37.4%로 가장 높아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산전산후휴가를 받는 녀성은 10명중 2명에 불과하여 최저수준이였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직장에서 녀성로동자들에 대한 성폭력행위들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이다.

고속도로봉사업체에서 일하고있는 한 녀성로동자는 《소장이라는 자가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녀성로동자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추잡하게 놀아도 일자리를 떼울가봐 말한마디 못한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은 녀성로동자는 2013년에 비해 두배나 늘어났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발하는 녀성근로자들의 대부분이 강제해고당하고있다.

올해 3월 영국잡지 《에코노미스트》는 남조선에서 녀성차별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조소하였다.

실로 남조선은 처참한 로동지옥, 중세기적인 고역장이다.

참을수 없는 분노와 항거의 분출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현 당국의 반인민적인 친재벌, 반로동정책에 사생결단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삶의 막바지에 빠진 로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으로, 공장굴뚝과 차디찬 땅바닥에서 몇개월씩 시위투쟁을 벌리는것으로 자기들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올해에만도 2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다이야공장에서 40대의 로동자가 분신자살하고 3월에는 부산의 한 술공장에서 370일이상 파업투쟁을 벌리던 로동자가 자기 집에서 숨진채 발견되였다.

지난 5월 10일 현 집권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어느 한 회사의 로조간부가 자기 집주변의 야산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지금껏 두차례나 해고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첫번째 해고후 3년만에 복직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그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으며 끝내 다시 해고시켰다.

관계당국과 결탁하여 정리해고소동으로 로조성원들을 박해하는 회사측의 악행에 분노한 그는 《끝까지 싸워 꼭 승리하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고 한다.

5월 11일에도 대규모의 정리해고소동이 벌어진 어느 한 회사의 전 로조간부가 시체로 발견되였다.

그 회사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로 하여 《제2의 쌍룡자동차》로 알려져있다.

올해 1월에만도 377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선포하고 4월 1일부터 그것을 강행해온데 대해 그는 죽음으로 항거해나섰던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로조탄압과 정리해고소동에 시달리다가 자살의 길을 택한 로동자수만도 20여명에 달하고있다.

죽음을 각오한 로동자들은 고공롱성투쟁까지 벌리며 항의해나서고있다.

금속로조소속 로조원들은 해고된 쌍룡자동차공장 로동자들의 전원복직과 비정규직철폐 등을 요구하여 15만 4 000V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장기간 롱성투쟁을 벌리였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화학섬유업체에서 해고로동자가 45m 굴뚝우에서 300일동안, 쌍룡자동차회사 로동자가 70m 높이의 공장굴뚝에 올라가 100여일동안 항의롱성을 하였다.

통신업체의 비정규직로동자들도 20m 높이의 광고판우에서 80일간이나 투쟁을 계속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있다.

2013년 12월 남조선 전지역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하여 외국독점자본과 매판자본의 배를 불리여주려는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하는 대중적인 파업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대면서 철도로조원 190여명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부한데 이어 무려 8 5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등 탄압책동에 광분하였다.

지어 철도로조지도부 성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60여개 중대 5 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들이치는 파쑈적폭거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민주로총은 현 집권세력과 전면전쟁을 벌릴것을 선언하고 결의대회, 파업 등을 줄기차게 이어갔다.

특히 올해 5.1절을 계기로 벌어진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은 더이상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항거의 분출이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은 적수공권의 시위자들에게 독성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대고 폭행을 가하며 무더기로 강제련행하는 무지막지한 깡패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더욱 격노한 남조선로동자들은 지금 그 어떤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6월에도 총파업투쟁을 계속 벌려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실현하고 현 《정권》을 단호히 심판하기 위해 궐기해나서고있다.

이것은 그 어떤 강권과 폭압으로도 생존권을 쟁취하고 사수하려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더는 살수 없게 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지옥같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하면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고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미국의 한 인터네트싸이트는 인구 10만명당 해외이민수를 비교했을 때 남조선은 1 680명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해마다 평균 2만 5 000여명이 남조선을 떠나고있는데 남조선을 세계적인 《이민왕국》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것이라고 비평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20대 청년들이 《이민계》라는것까지 내오고 타국으로 가고있는데 이에 대해 한 대학교수는 이것은 결국 청년들이 남조선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개탄하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그림자조차 찾아볼수 없는 암흑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참다운 인민적시책이 실시되는 우리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로동제도와 그에 보답할 일념으로 창조적열정을 다 바쳐가는 우리 해외파견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을 감히 시비중상하고 모독하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도발적망동이다.

괴뢰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광분할수록 파멸의 운명만을 재촉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104(2015)년 6월 24일
평 양

남조선에서 확대되고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미국방성의 세균전실험의 산물이다

국제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에 실린 글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국제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에 18일 《남조선에서 확대되고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미국방성의 세균전실험의 산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일본계 미국탐방기자의 글이 실렸다.

필자는 글에서 군부의 검열장막으로 의사들과 의학자들, 남조선의 보건관리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전파를 막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있다고 썼다.

남조선의 첫 메르스감염자는 중동의 알려지지 않은 곳을 방문하고 고향 경기도에 돌아온 68살 난 기업가였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중의 시야에서도 벗어나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전염병인 메르스가 미국방성의 세균전계획에 따르는 비루스연구와 련관되여있다는 증거의 실마리가 무시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래의 사실들은 지난 5월말에 시작된 남조선에서의 메르스확대가 오산미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세균전감시계획인 미국남조선련합 초기 및 통합위협인식 선진기술시험계획에 따르는 실험실사고에서 초래되였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12년에 시작된 아라비아반도에서의 메르스전염병은 약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널리 보도되였지만 실은 박쥐에 의해 발생하였다.

약대에 있는 특정비루스항체때문에 일명 《약대병》이라고 분류되여왔지만 사실 메르스는 닐강류역의 절벽가에 우글거리는 박쥐와의 접촉을 통해 퍼진 《동굴사람의 병》으로 인간사회에 알려진지 오래다.

미공군이 미국주도의 2차 이라크침공시 갱도시설과 동굴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렬화우라니움을 섞은 《GBU-28》 벙커버스터폭탄을 사용한 결과 오염된 박쥐의 비루스가 사람들에게 퍼졌다.

세균에 오염된 박쥐들이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들에 보금자리를 틀게 된것이다. (미국방성과 계약을 맺고 일한 세균학자)

-에짚트의 수도 까히라에 기지를 둔 미국 세균전집단인 3해군연구부대는 인차 메르스의 유전암호를 해득하고 그것이 코로나비루스이며 싸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통감기와 꼭같은 구형비루스군에 속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미국방성의 일류급세균전실험소와 애버딘성능시험장이 있는 메릴랜드주의 포트 데트리크의 세균전연구국이 메르스-코로나비루스연구를 감독하였다. (미군 공보국)

(참고:최초의 시료를 요르단에서 가져왔다는 공식주장은 미군점령하에 있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메르스전파에 대한 보도관제의 일환일수 있다.)

-미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 국장의 말에 의하면 2014년 4월 1일에 미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에서 메르스연구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세균전기술사를 내왔다. 펜타곤이 자금을 대주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해외에 있는 수십개의 생물공학회사들과 연구소들, 대학들의 민간실험실들에 세균전관련 연구가 위탁되였다. 메릴랜드에 있는 노버백스와 카나다에 있는 메디커고가 그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 메르스가 처음으로 발병한 시기 한 사병이 이에 감염된 후에 남조선군인 100명이 오산미공군기지에 격리되였다. 이 감염사건은 그 사병이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최초의 메르스환자》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 사병은 오산에 있는 151의학병원에 이송되기 전에 한 사립병원에서 뼈골절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남조선 《련합뉴스》 2015년 6월 3일 보도)

-경기도의 오산미공군기지는 세균전감시계획인 미국남조선련합 초기 및 통합위협인식 선진기술시험계획이 실시되는 기지로서 메릴랜드주 포트 데트리크의 기타 실험실설비들도 관리하고있다.

오산비행장은 시애틀-타코마비행장과 련결된 미공군수송중심기지로서 부상병들을 위한 주요치료 및 소개중심이기도 하며 따라서 세균전감시, 대응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있다.

(참고: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동려행을 하고 메르스에 감염된 기업가의 고향이라고 보도되고있다는것을 상기시킨다.)

-메르스의 세계적확대를 감시하고있는 세계보건기구는 서울에 본부를 둔 비밀적인 국제왁찐연구소도 후원하고있다. 이 연구소의 수석과학자이며 책임자인 져럼 김은 미군에 전근된 미공군장교로서 군사칭호는 대좌이다. 그는 메릴랜드주 로크빌시에 있는 월터 리드륙군연구소의 이전 분자비루스 및 질병과 과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왁찐연구소 과학고문위원회에는 뻬루의 깔라오에 있는 미군의 주요한 세균전개발기지인 6미해군의학연구부대의 과학국장인 박사 클로디어 레너터도 있다. (국제왁찐연구소 웹싸이트)

(참고:미군이 세계보건기구의 주요비루스실험실을 통제하고있다는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횡포한 명령과 통제를 온순하게 받아들이게 되였는가?)

-남조선의 보건연구원 연구사들은 남조선환자들의 조직시료검사를 하는 과정에 메르스변종이 사우디비루스와 거의 일치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남조선 보건복지부 웹싸이트)

-유타주에 있는 미군의 다그웨이성능시험장으로부터 오산미공군기지에 활성탄저균을 《우연히》 배달함으로써 메르스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흩어졌다.

(참고:탄저균배달은 모름지기 남조선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메르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탄저균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메르스의 세균무기화계획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직되였을수 있다. 실지로 아랍 석유생산국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세균전공격이 준비되고있다면 유전자변이체를 통한 실험이 남조선에서 진행되고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필자는 오늘 남조선이 군국주의일본의 특수무기연구집단이였던 731부대의 지속적인 《유산》으로 하여 비루스학중심지로 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비루스연구에서 미국이나 영국보다 앞섰던 군국주의일본은 1930년대말 만주에서 고도로 전염력이 강한 한타비루스를 분리배양하였다.

군국주의일본은 비루스계획을 선페스트에 대한 오랜 세균학적연구로 위장하고 최고극비에 붙이였다.

중국의 도시들을 상대로 하여 비루스무기들이 전개되였는데 감염되여 황천객이 되였는데 그것은 전쟁사상 제편의 무기에 제가 죽은 가장 치명적인 오유중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전쟁이 끝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타비루스에 의해 미국의 사각지대 토착원주민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이 계속 사망하였으며 보다 최근에는 미국의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었다.

필자는 계속하여 세계적으로 유전자변이형싸스와 조류독감, 에볼라와 메르스가 련속 발생하였는데 이 전염병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가져오고있으며 사람들을 공포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근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급히 해야 하지만 공정한 과학적조사는 사실상 진행될것 같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 《정부》가 《세월》호 침몰원인을 흑막속에 덮어버리느라고 시도하던 나머지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메르스사태로 신용도가 더 깊이 추락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필자는 서울이나 워싱톤은 메르스발생의 진짜원인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쉬이 주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무고한 남조선사람들이 메르스피해로 계속 목숨을 잃어야 할뿐아니라 아랍국가들에 닥쳐올 더 큰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감출수 없다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날강도적인 침략전쟁

조선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민족의 운명발전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그처럼 가렬하였던 조선전쟁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였지만 결코 이 땅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것은 아니다. 조선전쟁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으로 조미쌍방사이의 군사적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포성이 울릴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제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이며 오늘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는 침략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해마다 6월이 오면 조선전쟁도발자의 책임에서 벗어나며 패배자의 수치를 모면해보기 위해 그 무슨 《기념》행사들을 벌려놓는 어리석은 망동을 부리고있다. 하지만 력사는 결코 위조할수도 외곡할수도 없으며 부정할수도 없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은 명백히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저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정세를 리용하여 세계제패를 대외정책목표로 내세웠다. 미제는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조선반도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는 조선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리념상의 싸움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사이의 대결의 시험장》이라는 소리가 왕왕 울려나왔다. 그만큼 미제는 조선반도를 타고앉는것을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관건적인 문제로 보았다. 이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작성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전조선을 식민지화하는것을 대조선정책의 기본으로 정하였다. 그들은 전쟁만이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효과적수단으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1947년 7월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기여들었던 살인장군 웨드마이어가 자기 보고서의 결론에서 《군사적점령의 범위를 전조선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한것과 맥아더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조선문제에 관한 미국의 계획에 가장 정통했다는 에이다대좌가 《미국의 계획은 리승만의 직접적인 참가와 미륙해군의 원조에 의하여 조선의 38°선 이북지역을 점령하는것이였다.》라고 실토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전쟁은 바로 이렇게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세계를 지배해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세계제패전략과 대조선정책의 필연적산물이였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기초하여 전쟁도발계획을 작성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A, B, C전쟁계획》이 그중의 하나이다.

《A, B, C전쟁계획》은 전쟁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북침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며(A), 제2단계에는 전쟁의 불길을 만주에로 확대하며(B), 마지막단계에는 우랄까지의 전씨비리를 점령할것(C)을 예견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에서 먼저 전쟁을 도발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 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미제는 《A계획》과 관련한 《북벌계획》이라는것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이르러 괴뢰군련대들을 전반적으로 사단들로 개편하고 괴뢰륙군병력을 대폭 늘여 10만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괴뢰군무력에 대한 배비변경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무력을 38°선에 접근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무장도발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전면적인 북침전쟁의 길을 닦아나갔다. 하지만 미제의 기도는 우리의 경비대전투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949년 가을에 이르러 파탄되였다.

미제는 그 원인을 찾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데 달라붙었으며 이 과정에 《북벌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완성해나갔다. 새로운 《북벌계획》은 트루맨의 지시에 따라 맥아더가 책임지고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 괴뢰군의 고위장성들, 전 일본군 참모성원들의 참가밑에 1949년말부터 1950년초에 걸쳐 완성되였으며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토의비준되였다. 이 계획은 미군을 처음부터 조선침략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괴뢰정부의 한 장관은 1950년 1월 미륙군장관 로이얄과 맥아더사령부 외교국장 씨볼드가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리승만에게 《북벌》을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미국군함과 비행기는 남조선편에서 참전할것이니 해군과 비행기에 관하여 걱정할것이 없다는 담보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새로 수정된 조선전쟁도발계획에서 저들의 무력을 전면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점령하려고 획책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제는 새로운 계획에서 미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작전계획을 정치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한 미국무성의 외교적모략계획과 남조선주재 미군첩보기관인 《조선련락사무소》와 남조선괴뢰들의 첩보활동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미국무성이 추진하게 될 외교적모략계획은 북침을 개시한 즉시로 《북조선군이 무장공격》을 먼저 했다는 날조된 여론을 퍼뜨리는것과 함께 유엔에 《북조선의 침략》을 제소하고 유엔의 간판밑에 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의 군사작전을 《합법화》하며 다국적무력으로 《유엔군》을 조직하는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미국무성은 이 모략작전을 위하여 이미 전쟁전에 문건작성그루빠를 내왔고 유엔결의안초안의 골자까지 미리 작성해두었다.

미제는 이처럼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과 대조선정책의 요구에 따라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짧은 기간에 전조선을 강점하며 조선전쟁을 세계전쟁으로 확대하려는 극히 모험적인 침략전쟁계획을 작성완성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오래동안 주도세밀하게 준비하고 완성해온 전쟁계획에 따라 드디여 북침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할수 없었다.

위대한 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 미제는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전후에도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을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각종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왔다.

최근년간에는 《맞춤형억제전략》이니 뭐니 하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에 더욱 광분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침략적인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는 미제의 북침책동으로 조선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감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였다.

미제는 오산하고있다. 새 조선전쟁도발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짓은 없다. 지난 1950년대에는 그래도 항복서에 도장을 찍고 살아남을수 있었지만 그런 력사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전쟁으로 뼈에 새겨지게 만들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되여있다. 침략자 미제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리 학 남

날날이 드러난 범죄자의 정체

왜 일요일을 택했는가

미제가 6월 25일을 조선전쟁개시날로 정한것은 전쟁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타산에서였다.

미군사고문단장 로버트는 미국이 왜 6월 25일을 조선전쟁개시날로 정하게 되였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전부터 전쟁의 성격을 외곡하기 위한 모략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도서 《조선전쟁》은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6월 15일 로버트준장은 소환되고 그의 후임은 아직 오지 않고 대리하는 참모장은 가족을 바래우기 위해 도꾜에 가고 차장도 전쟁발발당일 일본에 가있었다.

당시의 긴박한 정세하에서 설사 본국에서 이동명령이 있었다 해도 군사고문단장이라는 중요한 직위에 있던 사람이 후임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뜬다는것은 있을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를 조선전쟁의 분화구앞에서 군사고문단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의 대리인인 참모장까지도 도꾜에 가있게 한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조선전쟁도발계획에 따라 전쟁도발자만이 꾸밀수 있는 짝자꿍이다.

조선전쟁발발때 미군사원회 청문회석상에서 조선전쟁발발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요컨대 북조선군은 38°선으로부터 훨씬 먼곳에 배치되여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어를 위한 배치였지 공격을 위한 배치는 아니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일본도서 《조선전쟁》 93페지)

《조선전쟁은 사실상 남으로부터의 도발로써 시작되였다.》(일본 교도통신 1975년 8월 25일)

제반 사실들은 미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전쟁도발자, 전범자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림 원

서 투 른 연 극

고문단장과 참모장이 작전지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다고 광고한것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투른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전쟁의 불을 지른 다음 도꾜에서 서울로 짧은 시간에 되돌아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때문에 이러한 연극을 연출한것이다.

사실 군사고문단 참모장인 라인트는 조선전쟁이 발발되자 곧 날아돌아왔던것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조선전쟁이 일본에 있는 미군총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군에 의해서 개시된 사실이 최근 이란주재 미군사고문 에이다대좌에 의해 명백해졌다.

이란의 참모대표들과의 회견석상에서 에이다대좌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이 사실을 알고있는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으며 그후 이란륙군대학생들과의 회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되풀이하였다.》(미국도서 《조선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일문판 64페지-65페지)

《1950년 6월 25일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리승만정권〉, 남조선군의 북조선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조선전쟁이 일어났다.》(일본도서 《조선문제에 대한 기본적시각》 170페지)

《1950년 6월 25일 미국제무기로 장비한 남조선〈정권〉의 괴뢰군대가 공화국북반부의 령토에 대한 불의침공을 개시, 군사행동은 워싱톤의 지령에 의하여 개시되였다.》(쏘련신문 《쁘라우다》 1980년 6월 25일)

《맥아더는 1951년 5월 미국회 상원 외교위

수 자 와 사 실 은 고 발 한 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제에게 차례진것은 패배자의 치욕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무리, 현대의 가증스러운 고등야만인이라는 악명이였다.

사실상 미제는 조선에서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한 가장 야수적인 살인전법을 썼다.

미제는 자주적인 인민이 살고있는 조선을 나라로 보지 않았다. 살륙마당으로 보았으며 병력과 무기의 가장 효과적인 리용을 위한 시험장,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간주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일본, 남조선괴뢰군 등 200여만명의 방대한 무력을 들이민것, 200억US$이상의 군사비를 탕진하고 태평양전쟁에서 소모한 군사물자의 11배에 달하는 7 300만t이상의 군수물자를 소비한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조선에서 미군이 수행한 작전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살해작전이였으며 전술의 기본은 불바다전술이였다.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북조선의 78개 도시들을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모조리 불태우고 죽이는 교살작전을 벌리였다.

평양시에만도 인구수보다 더 많은 무려 42만 8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건물 한채 성한것 없는 페허로 만들었다.

전쟁 전기간 공화국북반부상공에 공군비행대는 80만회, 해병대와 해군비행대는 25만회이상이나 출격시켜 태평양전쟁때 일본본토에 떨군것의 3.7배에 달하는 폭탄을 쏟아부었다.

미합동참모본부는 1951년 9월 21일 《작전상황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현장실험을 시작할것》이라는 명령을 하달하여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였다.

1952년 1월초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례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탄저균과 장티브스균, 페스트균에 감염된 곤충과 조개류, 새털들이 들어있는 폭탄들이 공화국북반부의 곳곳에 투하되여 평화적주민들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씌웠다.

미제는 세균무기뿐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를 공화국북반부의 시, 군들과 전선지구들에서 사용하였다.

미국의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하여 전쟁 전기간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였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만을 상대로 파괴와 살륙을 일삼은것이 아니였다.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남반부인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대학살만행은 이땅의 산천초목도 분노에 떨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야만적인것이였다.

1950년 7월말 미제살인귀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줄테니 모두 모이라.》고 하고는 수백명의 량민들을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살아남아 굴안에 피신한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미친듯이 란사하여 살해한 로근리대학살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천상륙작전때 미제침략군은 《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처녀들과 부녀들도 있다. 3일간 이 도시는 너희들의것이 될것이다.》라는 살인명령에 따라 서울에 진입하여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날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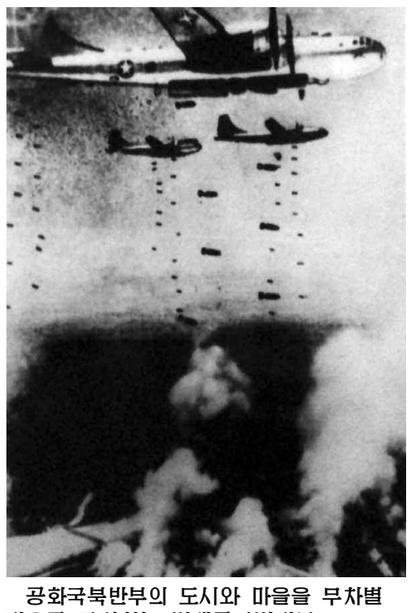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은 서울에서 양키살인마들이 애국자들의 머리가죽을 벗겨 《기념》으로 나누어가지는 소름끼치는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반도에서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전쟁 전기간 공화국남반부에서 《공비토벌》, 《통비분자숙청》의 구실밑에 무려 124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살륙하였다. 기업 및 금융기관 1만 8 000여개, 가옥과 공공건물 487만 8 920여동을 파괴하고 농경지 97만 6 900여정보를 불모지로 만들었다.

력사는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미제침략자들과 같이 무자비한 살륙과 파괴를 일삼은 극악무도한 살인마, 희세의 전범자들을 알지 못하고있다.

우의 수자와 사실은 지난 6.25전쟁이 미제가 조선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야만적이고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다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미제공중비적들

야수적폭격으로 파괴된 황해제철소(당시)의 일부

파 괴 된 철 교

미제침략자들의 생화학전만행을 폭로하는 국제조사자료의 일부

유엔《북인권사무소》를 페쇄하라, 현 《정권》은 퇴진하라

남조선단체들 강력히 항의

23일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반공화국모략기구를 서울에 설치한 남조선괴뢰패당의 망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렸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기독교사회선교련대회의, 불교평화련대, 대학생련합을 비롯한 30여개 각계층 단체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가 설치된 서울의 서린동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북의 체제전환을 로골적으로 강요하는 유엔 《북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이날 사무소가 설치된것은 북을 압박하기 위한 책동의 연장이라고 규탄하였다.

현재 유엔의 인권결의안들은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정치적목적에 따라 편파적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단체들은 비난하였다.

단체들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인권문제》를 들고나오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의 갈등과 긴장만을 격화시킬것이라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당국이 사무소를 없애고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길에 나서라고 단체들은 요구하였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미국대사관주변에서 유엔《북인권사무소》페쇄와 집권자퇴진을 위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는 남북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유엔이 《북인권보고서》를 내놓기 전에 먼저 북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지만 《탈북자》들의 말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도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저들의 말을 뒤집었다고 하면서 따라서 보고서는 당연히 페기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실로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한것은 유엔이 미국의 《인권》공세에 추종하여 빚어진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고 그들은 항의하였다. 그들은 유엔이 인권문제를 조사하려면 먼저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탄압, 교회탄압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으로 량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정치적자유를 억압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제약하면서도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가고 그들은 반박하였다.

그들은 미국도 고문과 인종차별에 매달리고 6.25와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을 비롯한 침략전쟁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는가 하면 핵전쟁, 세균전을 준비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미국이 무슨 체면으로 《북인권》을 떠드는가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북을 타고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불법적이며 위험한 유엔《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반드시 철수시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랑독되였다.

성명은 《북인권사무소》가 유엔의 탈을 쓴 모략기구, 내정간섭기구에 불과한것으로서 그의 설치는 박근혜《정권》이 반드시 퇴진해야 할 또 하나의 절박한 리유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옹호와 아무런 인연도 없고 오직 대결과 갈등만 야기시킬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로 얻을것은 국제적망신과 비난밖에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체제대결을 부추기며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유엔《북인권사무소》를 페쇄하고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사태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에 쌍수를 드는 당국의 반통일적행위에 온 민심이 격분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대결을 획책하는 당국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땅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을 대량학살하고 우리 나라를 초토화한 가장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이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아물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하기에 세계는 세기를 이어오며 조선전쟁도발자, 침략의 원흉인 미제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규탄하는것이다.

먄마신문 《더 뉴 에이쥐》는 《조선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전조선을 타고앉아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으로부터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이 전쟁은 가장 가렬처절한 전쟁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15개 추종국가군대들, 괴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들이밀었다. 현대적인 무장장비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금지된 세균무기까지 다 동원하였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예상과 상식을 깨뜨리고 조선이 미국을 타승하였다.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국은 태평양전쟁시기에 입은 손실의 근 2.3배에 달하는 손실을 당하고 항복서나 같은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허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조선반도에서는 새 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1950년대의 청소한 나라가 아니다. 조선은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정치사상강국일뿐아니라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으며 침략자들이 끝끝내 불질한다면 미국이라는 전쟁의 원흉, 악의 소굴을 송두리채 없애버릴 의지에 넘쳐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에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면 새로운 조선전쟁은 미국의 완전종말을 가져올것이다.》

인도네시아신문 《씨뿌따르 인도네시아》는 《조선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은 힘의 만능론을 떠벌이는 미국이 갓 창건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하여 도발한 침략전쟁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비대해진 경제적잠재력과 자본주의세계에서 차지하고있는 지위를 놓고볼때 사실상 미국의 힘은 너무도 막강하였다. 그러나 그처럼 〈강대성〉을 과시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수 없었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부서져나간 력사적사변이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전후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수십년간 새 전쟁도발소동을 끊임없이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국은 아직도 힘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리비아가 아니다. 만일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력사상 외부로부터 단 한개의 폭탄도 떨어져본적이 없다는 미국땅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다.》

미제가 아무리 발악하여도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다.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가 력사의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김 수 진

ㄱ-51099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